東友會報

發行人 崔 載 九
編輯人 尹 天 泳
印刷人 洪 景 模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 窓 會
直通 (267) 8568
交換 (267) 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환(祝)영

太平洋횡단 쾌거를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東國大學校

개(祝)선

자랑스런 民族氣像
東國意志가 빛냈다!

東國大學校同窓會

불굴의 東國意志가 太平洋을 건넜다

李載熊동문

一葉片舟로 死闘75일만에 大望실현

우리는 이겼다…승리의 V字

國產요트「파랑새」호를 타고 한국최초로 太平洋횡단에 成功, 로스앤젤리스에 도착한 李載熊(오른쪽) 동문과 그의 콤비 咸永文씨가 장한일을 해냈다는 자신감으로 승리의 「V」字를 자랑스럽게 그려 보이고 있다. <사진=東亞日報제공>

한국 요트橫斷의 新紀元

民族闘魂 世界속에 과시

一葉片舟로 三萬里길

의지의 東國人 李載熊(78國文) 동문이 그의 콤비 咸永文씨와 함께 요트하나로 마침내 지구의 가슴파인 태평양을 횡단하는데성공, 한국최초의 요트太平洋횡단의 쾌거를 이룩했다.

一葉片舟에 불과한 길이 10m, 높이13m짜리 요트「파랑새」號를타고 蔚山~로스앤젤리스의 3만리길 항해에 도전했던 李동문등은 長長75일간의 死闘끝에 1980년8월 6일 오전11시10분(한국시간)로스앤젤리스의 산타모니카南쪽「머리나 델레이」해안에 개선의 닻을 내리었다.

이날 목숨을 건 거친 항해끝에 육지에 첫발을 디딘 李동문은『마치 꿈만 같다. 그러나 다시 이배를타고 가라면 죽어도 못할것 같다』면서 감격에 목이 메었다.

목숨을건 一大 모험

東亞日報창간6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李동문과 咸씨 두요트맨의 태평양도전은 지난 5월23일 오후에 시작되었다. 울산현대조선소 도크를 떠난「파랑새」호는두달보름에 걸친 긴 항해도중 10m가 넘는 격랑을 5차례나 겪어야했고, 出航2주만에 主무전기고장으로 交信마저 두절된채 외롭고 불안한 모험을 계속해야했다.

李동문은 횡단길에 오르기前『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바다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내용의유서와「바다로 가고파」라는 자작시를 肉聲으로 녹음해놓은것등이 말해 주듯이 太平洋횡단의 대망을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바다에 生命을 건 일대모험이 아닐수없었다.

그러나 끝내 怒濤와 孤獨·恐怖의 길고도 먼 長征을 李동문등은 대담한 도전과 사내다운 기개, 불굴의 의지로서 오뚝이처럼, 불사조처럼 일어나 이겨내고 말았다.

山에서, 바다에서 東國意志 빛나다

『드디어 다왔다. 성공이다』라고 외치면서 李·咸콤비는 자신들도모르게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무서운 집념이 더욱 빛났고, 꿈의 실현이 반사되고 있었다.

이 壯擧는 실로 우리 東國이해낸 지난 4月28일의 마나슬루 정상 정복에 이은 또하나의 자랑스러운 금자탑이 되었다.

용맹정진, 불굴의 동국정신은 이제 山에서 바다에서, 東에서 西로 이으며 더욱 빛나고 있는것이다.

민족의 사학을 지켜 74년, 민족의 진취적 기상을 선도해온 동국의 정신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않는다.

보라! 동국인은 또 히말라야의 닐기리北봉에 도전하고, 5대주 최고봉에 오르기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동국의 기상은 바로 우리 민족의 기상으로 영원토록 우리 한국의 속에, 세계속에 자랑스럽게 빛나고 빛날것이다.

마나슬루 登頂에 이은

또하나의 金字塔 이룩

한국인의 氣槪떨치고 장한凱旋

5백여 人波 열렬한 환영

李載熊동문 健康한모습 餘裕보이며

3만리 太平洋횡단에 성공、한국인의 기개를 온세계에 자랑한「파랑새」호의 주인공 李載熊동문이 콤비 詹永文씨와 함께 지난 8月18日 오전8시30분 대한항공편으로 金浦공항에 개선、환영나온 가족·친지·시민등 5백여 人波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李 동문

검게탄 건강한 모습으로 트랩을 내린 李동문은 각계에서 보내온 꽃다발을 안은뒤 매스컴들의 뜨거운 프레시 세례를 받았다。

李동문등은 환영인파에 싸여『성원에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우리는 初志一貫、大韓 男兒의 명예를 걸고서 기어히 해냈읍니다。숱한 고생、죽을고비가 꿈만같았읍니다』라고 [illegible]했다。

간단한 入國절차를 받은 李동문등은 공항문을 나와 광장에 마련된 환영식장에 도착、꽃다발증정 만세삼창등의 간단한 환영식에 참석한뒤 곧바로 全斗煥 현대통령을 예방했다。

全斗煥대통령禮訪 『不退轉용기』치하

全斗煥 現 대통령은 지난 8월18일 오전 파랑새호로 태평양을횡단한 李載熊동문과 詹永文 두 요트맨등을 접견하고 이들의 進取的인 기상과 용기를찬양했다。

이 자리에서全현대통령은『不退轉의 용기와 인내로 어려운일을 성공리에 마무리지어 한국인의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친것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李載熊동문에 體育훈장 青龍章

태평양횡단 요트맨인 李載熊동문이 지난30일 오전 朴忠勳국무총리서리로 부터 체육훈장 青龍章을받았다。

「LA」·桑港서도 환영대회 南加州동우회 無電機2台선물

한국최초의 태평양횡단 요트「파랑새」호의 李載熊동문과 詹永文씨를 위한 환영식이 東亞日報주최、L·A한인회와 南加州동우회(회장=金基成)등의 후원으로 지난8月9日 오후 (현지시간) L·A총영사관 뜰에서 베풀어졌다。

이날 환영식에는 L·A市長을 비롯 韓美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이들을 격려했는데、남가주東友會의 金회장을 비롯 任香根 김봉근 오영환 김진 장우상등 10여명의 동문도 자리를 함께하고 이들에게 無電機2臺와 화환을 증정하고 東友愛를 꽃피웠다。

한편 8月12日 오후 (현지시간)에 있은 샌프란시스코환영대회에도 南泰熙 이장수동문등이 참석하고、李동문등을 환영했다。

한편、이보다앞서 우리나라 요트史에 최초로 기록될 壯擧、태평양 횡단을끝낸 李동문등은 개선다음날인 7일오전엔 로스앤젤리스總領事로부터 꽃다발을 받았고、요트하버의 많은 요트맨들로 부터 축하를 받았다。

각계祝電답지

全斗煥 現대통령은 지난 7일오전「파랑새」호의 쾌거를 축하하는 電文에서『파랑새호의 모험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꿈을 [illegible] 길이 민족의 자랑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東亞日報主催 祝賀파티 崔會長이 꽃다발 증정

개선한「파랑새」호의 요트맨 李載熊동문과 詹永文씨、그리고 대한海峽 [illegible] 五連을 위한 [illegible] 환영리셉션이 [illegible] 밤 세종문화회관 [illegible]에서 성대히 베풀어졌다。

모교 鄭在覺총장과 尹載九회장과 [illegible] 등이 초대된 [illegible]에는 金元基부총리、서울시장、曺相[illegible] 駐韓 日本·中[illegible] 대사를비롯 체육[illegible] 가족친지등 3백[illegible] 이들의 장거를 [illegible]

이자리에서 [illegible]회장은 5萬동문을 [illegible]해서 李載熊동문과 [illegible] 과함께 苦樂을 함께했던 詹永文씨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파랑새」호

[illegible] 경기요트와는 달리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大洋횡단에 적응할수 있는 船體기능을 갖고 있다。우선 전복방지를 위해 선체하단에 바라스트킬(선심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쇳덩이)을 달았는데、이무게도 선체중량의 半에해당하는 2·4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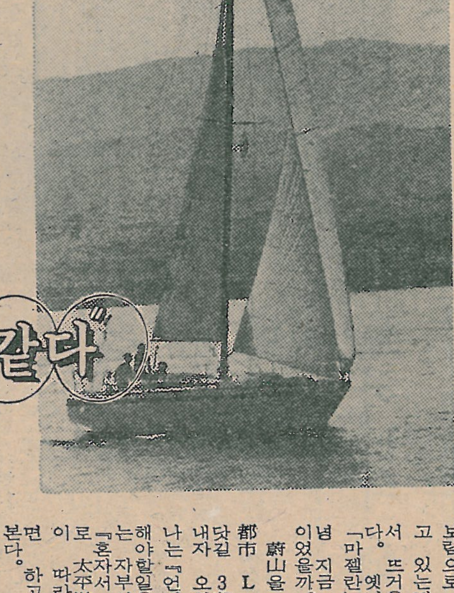
마을사람몰려 祝賀잔치 李동문부친 美國가서父情달래

[illegible]

그러나 당초 골인지점의 [illegible]으로 극적인 상봉대신 [illegible]의 通話를 나누었는데 李氏는『어젯밤 네꿈을 [illegible]다。오늘 드디어 성공[illegible]을 듣게됐다』고 목메[illegible]

한편 故鄕인 高敞군城內면소재지의 李동문집에는太平洋횡단 성공소식이 알려지자 郡守등 3백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잔치기분에 들떠있었고 母親 金玉福씨는『아들이 다시 살아온것같다』며 기뻐했다。

李동문집은 양조장을 하고있으며 1만4천평의 논까지 있는 富農。8남매중 2째인 李동문은 태평양횡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후집창고에서3척의 요트를제작、인근저수지와 변산해수욕장에서 훈련을 쌓았으며 집에선 요트제작과 횡단등의 경비로 2천만원을 지원해주었다는것。또한 李동문은 수영에도 뛰어나 洞里에서 물개로 통하기도。



◇民族의 意志를 빛내게한 요트「파랑새」호의 모습

"3萬里뱃길 꿈만 같다"

— 太平洋 횡단記 李 載 熊

『만세! 드디어 왔다。어머님 아버님 우리들은 끝내 해내고 말았읍니다。위험하다며 그렇게도 말리시던 太平洋횡단을…』

태평양을 일엽편주로 건너가는것은 자살행위라고 극구 말리던 가족의 손을 뿌리치고 험한 바다로 뛰어든지 75일、그간 겪었던 고생、두려움과 초조 모두가 이순간에 잊혀지는듯 흥분을 느꼈다。

나는 성공에의 환희와 보람으로 심장이 맥동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뿌렸다。옛날「콜럼버스」와「마젤란」의 환희는 정녕 지금 우리와 같은 것이었을까。

蔚山을 떠나 美國西岸都市 L·A에 이르는 바닷길 3萬里 항해를 끝내자 오히려 흥분해진 나는『언젠가는 누가해도 해야할일을 먼저 해냈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혼자서 더 작은 배로 太平洋을 건널사람』이 따라 나와 주었으면 하고 욕심을 가져본다。

나는 지난 5月23日 울산항을 出發、日本시모노세끼근해를 지날때 파고 18m의 격랑과 싸워야했고、또 어떤 때는 하루종일 한치의 전진도 못하는 無風지대에서 지리함을 달래야 했다。

또한 괴로웠던 것은 出發15일째 不意의 무전기고장으로 인한 交信두절이었다。航海상황을 고국에 알리고 싶어도 알릴길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미국바이어가 사기로 계약한「파랑새」호를 샌프란시스코까지 직접 세일링해서 갖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지런히 항진을 계속해야만 했다。

말이 航進이지 때로는 순풍에 쾌속의 행운을 얻기도 하지만、그보다는 船體를 삼킬듯한 폭우와 강풍、세찬 白波에 밥도 제대로 못먹기가 일쑤였다。

어둠속의 불청객「날치」기습에 간담이 서늘해야 했고 뜻밖의 돌고래떼를 보는순간 긴장감에 바짝 휩싸였다。돌고래는 상어와달리 人間을 해치지않는 동물이라는 정도의사전지식이 없었던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6월7일 교신이 끊긴 뒤、우리는 6월17일 太平洋上에서 日本어선을 만나、순항메시지를 전달했으며、7월7일 수평선을 타고 우리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국적미상의 선박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배가 바로 우리의 순항을 알린 美해안경비선일줄이야。

7월7일 낮엔 샌프란시스코 정서쪽 1천2백m지점 해상에서는 미국의 大型요트「화이트 버드」(하얀새)와 조우、미리 건빵통에 넣어 준비해둔 메시지를 5m 옆까지 근접한 갑판에 던져 순항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入港地변경을 미처 알리지못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교포들을 본의아니게 고생시켰는데、그것은 엔진고장으로 인한 進入時의 충돌不安과 또 金門橋밑에서 美船主에게 인도하기로 한 船體의 부분파손이 많아 현대그룹支社가 있는 LA에서 복구한뒤 넘겨주기 위해서였다。우리는 마침내 죽을고비들을 수차례 넘겨 千辛萬苦끝에 미국땅을 밟았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이 太平洋을 건너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기초작업에 쏟은 노력도 실제 배를 타고 태평양에 뛰어든 뒤 쏟은 것보다 결코 적지 않았다。

太平洋上을 호를 조류、종류、속도、방향등 나름대로 철저히 연구를 했고 별을보고 위치를 판가름짓는법、요트운행술등에도 어느정도 도통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웃을수 있다。다시 태어난 기분이다。우리를 뜨겁게 성원해준 모든분들에게 榮光을 돌리고 싶다。

東友提言

山에서、바다에서 頂上이었다

尹 天 泳 〈63農學·本會事務局長〉

山에서、바다에서 우리는 頂上이었다。

타오르는 東國意志는 魔의 雪峰 마나슬루를 정복했고 太平洋을 橫斷했다。

지난 年末「東國人의 밤」에 참석했던 同門 모두의 가슴에는 大望의 80年代를 맞을 벅찬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내년에는 뭔가 될만도 한데、꼭 그럴 것 같은 기분이야!』

모두가 그랬다。그만큼 東國人이 내뿜는 熱氣는 뜨거웠고 팽창했었다。

추위가 지나고 봄을 맞은 우리의 반소매 사이로 다시 찬바람이 불어 닥쳤다。잇단 學園과 社會의 소용돌이로「大望」은 고사하고「大亡」의 80年이 되는가 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李仁楨隊長이 이끄는 우리의 마나슬루 등반대는 빛나는 지혜와 굳은 意志로 東國人의 가슴에、民族의 가슴에 응어리지는 환희를 안겨 주었다。

7人의 東國 山사나이들이 萬年雪에 펼친 정상에의 도전과 정복은 勇猛精進하는 東國의 意慾과 氣槪、勇氣의 結晶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파랑새호의 李載熊同門은 콤비 詹永文씨와 一葉片舟로 萬頃蒼波 험난한 太平洋 3萬里를 75일간 거친 파도와 폭풍우、뼈까지 파고 드는 햇살、밤의 어두움과 추위와 싸워 이긴 것이다。거대한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물기둥에、急流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몇수십번이나 死境을 헤매었던가。

出航前에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遺言을 남긴 李同門의 자세는 臨戰無退의 바로 그 花郞의 氣像이었다。

또한 며칠 後면 吳仁煥同門이 난코스 7천61미터의 히말라야 닐기리 북봉에 挑戰한다。吳同門은 알프스와 안나푸르나 I봉등의 遠征에서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반드시 成就하고야 마는 東國人像을 再鼎立할 것이다。

이렇게 東國人은 山에서 大洋에서 그 遠大한 꿈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이러한 快擧들은 결코 우연이나 運이 아닌 것이다。東岳을 오르내리며 겪은 피눈물 맺히는 訓練과 경험、知識의 열매를 수확했을 뿐이다。

세상일이 그러하듯 行動의、열매인 결과만을 중요시함이 보통이다。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과의 必要條件을 생각해봐야 한다。

◇尹 동문

현재와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新世界를 탐험하고 개척해 나가는 탐구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地球의 深層部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용암과도 같이 뜨겁게 용솟음치고 있는 東國精神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與件을 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5萬東國人의 意志로 새로 열린 時代、새역사창조의 主人이되어야겠다는 것이다。이제 1백여일 굳게 닫혔던 大學門도 활짝 열렸다。

교수와 학생은 강의실에서、연구실에서、도서관에서 그 저력을 연마하고 모든 동문은 각자의 분야에서 休火山의 起爆劑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東國意志의 無限한 可能性을 확인했다。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東國人 모두가 팔을 걷어 붙이고 魔의 마나슬루에 오르듯이、三萬里太平洋激浪을 헤치듯이 밝은 東國의 未來를 열어나가자。위대한 새 歷史를 創造하기에 모든 東國人의 피와 땀이 솟구칠 만도 한 때이다。

바다로 가야하리

나는 다시
바다로 가야하리
외로운 물결과 하늘이
있는곳 바다로。
큰 돛대와 돛대를 인도하는
별을 벗삼아—。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소리,
나부끼는 흰돛。
그리고 바다위에 덮힌 하얀 안개와
새벽의 뽀얀 먼동。
나는 다시
바다로 가야하리。

부서지는 물보라
흩날리는 물거품과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그리워
나는 다시 가야하리。

짚시의 유랑길
휘파람 칼날처럼 매서운 바람부는
갈매기, 고래의 길로—。

방랑의 친구가 웃으며 지저거리는
바닷 얘기는 나의 소망。

기나긴 뱃길이 끝나는 날
편안한 잠과
달콤한 꿈 또한
나의 소망。

<위詩는 李載熊동문이 出航에 앞서 肉聲으로 녹음해둔 自作詩임>

學·處長級대폭 人事移動

각 單科大學長등 새로개편

학교법인 東國學院理事會(理事長=朴淇宗)는 지난 8月22日 오전 이사장실에서 理事會를 열고 鄭在覺총장이 제청한 학처장및 기관장의 人事개편을 승인하였다。이번 학처장들의 개편은 대부분 任期만료에 따른 것으로 鄭총장 취임후 두번째 단행된 大人事조처이다。

인사내용을보면 아직 任期가 남은 黃壽永대학원장、李丙疇교육대학원장、河德模교무처장이 유임되고 金翰周총무처장、裵鍾根기획실장은 그대로 再任되었다。

새로 기용된 學處長들은 행정대학원장에 權允赫(정외과)、경영대학원장에 張源宗(경제과)교수가 임명되고 불교대학장에 李智冠(승가과)、문리대학장에 李東林(국문과)、법정대학장에 廉政哲(법학과)、경상대학장에 吳德永(경제과)、농림대학장에 權寧大(임학과)、공과대학장에 吉正天(건축과)、사범대학장에 金長好(국어교육과)、二部大학장에 金鍾遠(경제과)、경주대학장에 申宗淳(행정과)교수、학생처장에는 趙熙榮(경영과)、도서관장에는 李載昌(불교과)교수가 각각 任命되었다。

◇學處長級개편명단

大學院長	黃壽永	(留)
行政大學院長	權允赫	(新)
經營大學院長	張源宗	(新)
敎育大學院長	李丙疇	(留)
佛敎大學長	李智冠	(新)
文理科大學長	李東林	(新)
法政大學長	廉政哲	(新)
經商大學長	吳德永	(新)
農林大學長	權寧大	(新)
工科大學長	吉正天	(新)
師範大學長	金長好	(新)
二部大學長	金鍾遠	(新)
慶州大學長	申宗淳	(新)
敎務處長	河德模	(留)
學生處長	趙熙榮	(新)
總務處長	金翰周	(留)
企劃室長	裵鍾根	(留)
圖書館長	李載昌	(新)

◇黃 대학원장

◇權 行大院長

◇李 敎大院長

◇張 經大院長

◇廉 법정대학장

◇李 문리대학장

◇李 불교대학장

◇金 사범대학장

◇吉 공과대학장

◇權 농림대학장

◇吳 경상대학장

◇趙 학생처장

◇河 교무처장

◇申 경주대학장

◇金 2부대학장

◇李 도서관장

◇裵 기획실장

◇金 총무처장

科學館長에 沈載厚교수
實習農場長 金興培교수

또한 과학관장에는 沈載厚(화공과)、實習農場長에는 金興培(농학과)교수가 발령되었다。

東大新聞主幹 兪光震敎授

東大新聞 신임主幹에 兪光震(政外科)교수가 지난 8월19일 부임했다。

經營大學院學監 趙旺基敎授

경영대학원學監에 趙旺基(무역과)교수가 임명되었다。

公報部長에 睦楨培교수

企劃室공보부장에 睦楨培 불교대교수가 새로 임명되었다。

體育部長에 羅彦杓동문

體育指導部長에 羅彦杓(前총무과장)동문이 새로 부임했다。

모교人事

▲총무과장 吳正權(학적과장) ▲학적과장 姜昌淳(2부교학과장) ▲2부교학과장 朴在憲(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金鍾玉(총무과주임) ▲총무주임 白宇錫(경영대학원교학주임) ▲經營大學院교학주임 李載炯(학생생활주임) ▲學生生活주임 薛永基(총무과)

동문夫婦

林 廣 植 (夫) 〈72년·商學〉
韓 英 淑 (婦) 〈74년·社敎〉

美移民5년…이젠 安定과 餘裕누려

마천루의 정글로 가려진 거대한 맨허턴街의중심부에 자리잡은 지상4층、지하1층빌딩의 주인이 된 林廣植(72商學)동문과 韓英淑(74社敎)동문부부가 移民5년만에 함께 故國을 찾아 모교에 들렀다。

때마침 내리는 보슬비를 맞으며 학창시절을 더듬는 두동문의 감회는 실로 크기만했다。바로 지금서있는 이곳 東岳에서 林·韓동문의 사랑이 싹텄기 때문이다。

두동문의 인연은 꼭10년전인 지난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총학생회 봉사부장이었던林동문은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신부감을 찾고있던 중이었는데、이때 발견된 미모와 才氣의 여학생이 바로 지금의 신부가된韓동문이었다나。연령차로인해 처음엔 오빠、동생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곤했는데 林동문의 적극공세로 인해 이들은 재학중인 71년11월21일 신혼예식장에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이때문에 한동문은 마치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林同門의 내조자로 새가정을 꾸리기에 더 바빴다。

◇쉐라톤워커힐호텔앞에서 포즈를취한 林·韓동문과 두아들。

이들도 남들처럼 단란한 신혼의 꿈을 키우며 林동문이 무역회사인 서광산업、선경직물무역부등의 직장을 나가는동안 2세인 병훈(8세) 병육(6세)이 태어났다。

그러나 두젊은 동문의 욕심은『평범한 생활에서 탈피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노력한만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속에 고생을 각오하고 美國이민길을 결심、둘째아이 돐날인 75년6月11日 마침내 출국하기에 이르렀다。美國에 먼저가있는 林동문의 親弟가 알선해주어 처음가서 자리잡은곳이 조그만청과가게。두부부가 매일 18시간씩 가게에 매달려 얻은 수입은 3개월후 이들이 독립가게를 얻게끔 해주었다。

支部활동에 남다른 熱誠부부

實業家꿈꾸며 지금도맞벌이

『장사를 하다보니 어렵게 벌게되고 또 쓰는것도 상대적으로 힘들더군요』라고 말하는 두동문은 지난79년1월엔 맨허턴가의 조그만 빌딩을경영할 정도로 생활의 안정을 갖고 이제 그동안 소홀히했던 子女교육과 정서적인 여유에 신경을쓰겠다고 지난날의 숱한고생을 서로 위로한다。

하지만 처음엔 다시돌아오려고 짐도 여러번챙겼는데『무슨면목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韓동문의 인내와 격려가 오늘이있게했다』고 内助의 힘을 추켜세운다。

『이곳 사람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생활태도가 여자입장으로 볼때 매력이 있는 것같다』고 말하는 韓동문은『그러나 교포사회의 공통적 문제점이 되고있는 子女교육에의 애로가 많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때면『한국의 외갓집에아이들을 보내 우선 한국말이라도 자꾸 주입시키는 노력을 하고있다』고 덧붙이는 두동문은『조국이 안정되고 발전돼야우리교포들、또우리 2世가 대우를 받게된다』고 강조한다。

뉴욕에 먼저 가있는 吳法眼(前모교副總長)스님을만나 東部지역동창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두동문은『이제 동창회 개근생이 되었다』고 자랑하고『또 他大學출신보다 의리가 강하고 교분이두터워 활발한 동창회로성장하고있다』고 전하기도 한다。

10만뉴욕한인회 理事、한인뉴욕실업인협회 理事등을 맡고있는 林동문은 이번귀국은 한미신용금고개설에따른 시장분석에도 있다고 말하고 섬실한실업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또 韓同門은 세종여행사 이사로 활약하고 있으며、이들은 미국생활5년만인 금년에 市民權을 얻게된다고자랑이다。

『해외에나가있으니 모교와조국 사랑이 비록말뿐일지라도 절실해진다』는 두동문의 보금자리는 K.S.Yim 345 1st Av.N.Y 10010、(212)260-6650、(212)477-5765

現住所 캐너더支部 (80·5月末 현재)

▲안수열( )= Mr. S. R. Ahn 340 Dixon Rd., Rm# 1101 Weston, ont M9R 1T1 Res. 247-7502
▲조중정(63 商學)= Mr. C. C. Cho 30 Clarke Ave., Apt #611 Thornhill, ont. L3T 1S3 Res. 881-5590
▲조정대(64 國文)= Mr. C. D. Cho 725 Miktary Trail West Hill, ont. M1E 4P6 Res. 284-7069 Bus. 282-5632
▲조방주(58 國文)= Mrs. B. J. Cho 7 Northlin park Rd., Lindsay, ont. K9V 4P2 Res. 1-705-324-5779 Bus. 1-705-324-1958
▲최종하(59 經濟)= Mr. C. H. Choi 7 Golf crest Rd., Islington, ont. M9A 1L2 Res. 233-3787 Bus. 233-3349
▲최건우(60 生物)= Mr. K. O. Choi 389 Lumsden Ave., Toronto, ont. M4C 2L6 Res. 699-8815 Bus. 690-7276
▲최계량(51 史學)= Mrs. G. R. Choi Mathilda Boundas 172 Park Hill Rd., Edst Peter borough ont. K9H 1R1 Res. 1-705-743-8805
▲천윤기(50 經濟)= Mr. Henry Chon 184 Mammoth Hall Trail Scarborough, ont. M1B 1R1 Res. 298-0432 Bus. 421-4960
▲정규영(58 國文)= Mr. K. Y. Chung 7 Northlin Park Rd., Lindsay. ont. K9V 4P2 Res. 1-705-324-5779 Bus. 1-705-324-1958
▲정광풍(59 哲學)= Mr. K. P. Chung 398 KernSt., Oakville. ont. L6K 3C1 Res. 844-4407 Bus. 844-8052
▲홍성표(60 經濟)= Mr. S. P. Hong 58 Sabrina Dr., Weston, ont. M9R 2J9 Res. 248-4578 Bus. 783-5636
▲강만근(61 法學)= Mr. M. K. Kang 1375 Midland Ave., Apt. #812 Scarborough, ont. M1P 3B7 Res. 757-0430 Bus. 755-3233
▲김국조(63 經)= Mr. K. C. Kim 71 Houston Cres., Willowdale, ont. M2J 3H7 Res. 496-0557 3 Bus. 481-9373
▲김종두(64 經濟)= Mr. C. D. Kim 22 Porterfield Cres., Thornhill, ont. L3T 4S7 Res. 881-5162
▲김재현( )= Mr. J. H. Kim 340 Dixon Rd., #2115 Weston, ont M9R 1T1 Res. 245-4504
▲김회수( )= Mr. H. S. Kim Massey Sq., Toronto, ont. M4C 5L4 Res.
▲이성희(56 史學)= Mr. S. H. Lee 27 Fairlin Dr., Islington, ont. M9B 4J1 Res. 233-2223
▲이영호(71 佛敎)= Mr. Y. H. Lee 20 Graydon Hall. Apt# 1210 Don Mills, ont. Res. 424-3454
▲이헌구(74 法學)= Mr. H. K. Lee 9 Bowater Dr. Agincourt, ont. M1T 1S9 Res. 497-1248
▲이정구( )= Mr. J. K. Lee 2283 Eglinton, E. Apt #908 Scarborough ont. M1K 2Z4 Res. 759-5749
▲이의열(70 食工)= Mr. U. Y. Lee 15 Kensington Rd., #804 Bramalea, ont. L6T 3W2 Res. 791-6412
▲이정범(57 英文)= Mr. J. B. Lee 350 Seneca Hill Dr. Apt. #1407 Willowdale, on M2J 4S7 Res. 494-0419
▲이장섭( )= Mr. J. S. Lee 150 Madison Ave., Tornto, ont. M5R 2S3 Res. 960-0074
▲이양주(68 經營)= Mr. Y. J. Lee 91 Bdycrest Ave., Toronto, ont. M6A 1N2 Res. 787-6407 Bus. 633-5980
▲임종아( )= Mr. C. O. Lim 108 Billington Cres. Don Mills, ont. M3A 2G6 Res. 444-1632
▲오용희(72 經營)= Mr. Y. H. Oh 209 Queen St., S. Mississauga, ont L5M 1L4 Res. 826-3917
▲오창섭(60 經濟)= Mr. C. S. Oh 25 Cosburn Ave., Apt# 1102 Toronto, Ont. M4K 3Y4 Res. 421-5613
▲박완(72 美術)= Mr. Wan Park 200 Bay St., S. Apt# 2409 Hamilton, Ont. L8P 4S4 Res.
▲박경태(66 林學)= Mr. K. T. Park 1017 Bloor St., W Toronto, Ont M6H 1M1
▲피세영(64 演劇)= Mr. S. Y. Pi 165 Cherokee Blvd., Rm. #137 Willowdale, Ont. M2J 4T7 Res. 494-3367
▲라민근(62 生物)= Mr. M. K. Rha 1580 Mississauga Valley Blvd., #905 Mississduga, Ont. L5A 3T8
▲심두환( )= Mr. D. H. Sim 100 Pape Ave., Toronto, Ont. M4K 3V7 Res. 699-2442
▲선문자(72 佛敎)= Ms. K. O. Suk 288 Hounslow Ave. Villowdale, Ont. M2N 2B8 Res. 223-9152
▲성낙윤(55 國文)= Mr. N. Y. Sung 112 Ridge Dr. Toronto, Ont M4T 1B8 Res, 487-8088
▲원재훈( )= Mr. C. H. Won 366 The East Mall, Rm #103 Islington, Ont. M9B 6C6 Res. 621-2955
▲유칠왕( )= Mr. C. Yu 996 SydenhamW.Rd.,Unit #51 Peterborough, Ont. K9J 7V7 Res. 1-705-745-7910
▲유영목(64 經濟)= Mr. Y. M. Yu 56 Rushley DR., Scarborough, Ont. M1P 3S5 Res. 755-6238
▲유성식( )= Mr. S. S. Yu 1421 Ludbrook Court Mississauga, Onrt. L5T 3P2

107日만에 캠퍼스活氣…開講서둘러

正常수업에 萬全 5日 개강

鄭총장 "自我省察로 學業專念을"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함께 내려졌던大學休校令이 1백7일만인 9월1일부로 전면해제됨에 따라 모교 캠퍼스는 오랫만에 상아탑의 젊은主人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모교는 29일 오전과 오후등 마라톤식 학처장회의를 열어 개강일자를 논의하는등 개강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교는 오는5일부터 정상개강을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오랫만에 정든캠퍼스에나와 三三五五해후의 기쁨을 나누는 학생들(30日낮 석조관앞에서)

29일 열린 학처장회의는 개강여건과 개강일자에대해 논의, 법정일수 1백80일을 채우려면 조속한 시일내에 개강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9月3日로 文敎部에 개강신청을내어 5일부터개강토록승인을받았다. 휴교상태로들어간지 한달만인 지난6月19日 목수 대학원개강등의「休業令」완화조치로 다시 출입이 허용되자 모교는 그동안 개강에 대비, 교수회의등을 열어 2학기 수업시간표작성, 학생개인면담과 학칙개정및 총학생장 선출등 바쁜일정을 보냈다. 이에따라 모교는 9月초에 개강을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5일부터 開講을 맞게되었다.

개강에앞서 鄭在覺총장은 가정통신문을 통해『학교를 떠나있는학생의 心情만큼이나 학생이없는 校庭과 강의실을 지키는敎職員들의 심정 또한 錯雜했었다」고 말하고, 『어떠한 社會的 변화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교육이 계속되도록 차분히 自我를 성찰하고 心機一轉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를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8일 휴업령해제발표가 있자 학교로 전화를 걸어 개강일자를 묻는 학생이 많았으며, 29일엔 성급한 학생들이 캠퍼스를 찾아 잔디밭등에서 오랫만의 해후를 나누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띄었고, 30일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찾는학생수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학도호국단 幹部 선출

學則보완 총학생장에 노주혁君

◇노總學生長

모교 학도호국단 임원선거가 지난8月30日 교수종합세미나실에서 실시되어 총학생장에 노주혁(農生科3년)君이 당선되었다.

새로 보완된 학칙의 선거시행세칙에 의거, 처음실시된 이날 선거는 먼저 3학년 各科학생장(科代表)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오전에 단과대학학생장을 뽑은다음, 오후에는 단과대학학생장중에서 총학생장및 총부학생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총학생장=노주혁(農生3)▲총부학생장=박회윤(二部會計3)▲佛大학생장=안종서(승가3)▲文理大학생장=지영남(化學3)▲法大학생장=이진성(法學3)▲經商大학생장=홍석표(經營3)▲農大학생장=(총학생장겸임)▲工大학생장=최동지(土木3)▲師大학생장=홍성호(數敎3)▲二部大학생장=(총부학생장겸임)▲여학생제대장=김혜숙(國史敎3)▲慶州大학생장=김완식(英文2)

高校농구개막

9月9~14日 男女17개팀 參加

제6회 모교總長旗쟁탈 전국高校籠球大會가 오는 9월9일부터 14일까지 모교 體育館에서 화려하게 개막된다.

韓國中高농구연맹 주관으로 작년도 우승팀인 해성女高등 남녀고교 17여개팀이 참가하게될 同大會는 熱戰6일의 풀리그로 진행되어 우승팀을 가리게된다.

同大會는 지난5月 개최예정이었으나 休校조치로 無期연기되어 이번에 열리게되었는데 지난75년에 창설되어 매년 우리나라 농구계의 핵심멤버들을 배출해온바 있다.

社會淨化결의

교직원 3백여명

모교 교직원들의 사회정화결의대회가 지난8월20일오전11시 조계사에서 宗立학교연합으로 열렸다.

모교에서는 鄭在覺총장을 비롯 3백여명의 교직원이 참가한 이날 결의대회는 새로운 국가발전에 적극참여하여 새시대·새역사를 창조할것등을 다짐했다.

◇鄭총장(左)이 美E·와싱턴大 프레드릭슨총장과 자매결연서에 사인하고있다.

學術교류등 具體案협의

鄭총장、E·와싱턴大총장과 자매조인

母校와 美國의 教育學·人文科學의 명문인 이스턴·와싱턴大간의 자매결연이 지난 6월26일 정식 조인되었다.(사진)

조인식은 모교 鄭在覺총장이 지난 6월24일 도미, 同대학 죠지 프레드릭슨총장을 예방함으로써 이뤄졌는데 이로써 兩校는 앞으로 교수및 학생과 학술도서 교환등을 통해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게된다.

이번 자매조인에 따르면 81년3월부터 1학기(6개월)코스를 원칙으로 하는 연구교수를 교환하게 되는데, 사전에 상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토록되어있다.

또한 학생교환은 토플시험 理工系가 4백점, 人文系가 4백20점 이상인자로 총장의 추천을 거쳐 留學하게되며 수업료(또는 기성회비)면제혜택을받는다.

이밖에 兩校는 도서교환·예술작품교환을 비롯하여「경영학세미나」「외국인을 위한 영어강좌」등을 갖도록 되어있는데 경영학세미나의 경우 兩國의 교수·경영자그룹을 모교와 E·와싱턴大에 각각 초치하게 된다. 영어강좌는 모교주관으로 현직교사·회사원등을 모집, E·와싱턴大로 직접 가서 일정한 기간의 강의 코스를 밟게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鄭총장은 美國방문에 이어 西獨「본」대학을 방문, 자매결연에 앞서 서독에산재한 학술연구재단의 수혜책등을 논의,「본」대학교수와 모교교수의 공동연구를 통한 학술의 이해증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언약을 받았다.

學生간부 修鍊마쳐

民主역량·지도자資質함양

재학생들의 護國학생상 정립과 민주역량및 지도자 자질개발을 위한 하계학생간부수련대회가 지난 8월17~19일까지 3일간 江華 전등산장에서 열렸다.

鄭在覺총장을 비롯、李丙疇교육대학원장、趙熙榮학생처장및 관계직원과 학생간부후보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주제강연과 自由토론등으로 참가자 상호간의 이해증진、지도력 개발、면학분위기 조성등을 도모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鄭총장의「호국학생으로서의 국가관 재인식」이라는 주제특강과、趙학생처장의「학생활동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趙演鉉회갑논문집 獻呈

"최선의삶으로 聲援보답할터"

문학평론가 趙演鉉(42혜전·한국文人協會이사장)교수의 회갑을 기리는 石齋趙演鉉박사回甲기념論文集헌정식이 지난7月25일밤 市內 앰버서더호텔 2층홀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同논문집간행위원회(위원장=金起東)가 주관한 이날 헌정식에는 모교 鄭在覺총장、崔載九동창회장을비롯、朴鍾和 宋志英 金東里씨등 文壇의 元老들과 가족·진지、동문·제자 4백여명이 참가、趙동문이 한국문단에 이바지한 큰업적을 높이 기렸다.

헌정식은 吳學榮(62·國文·文協사무국장)동문의사회로 경과보고、趙동문의약력소개에 이어 논문집헌정식 鄭총장과 崔會長의 축사가 있었으며、모교 國文科교수、대학원생、재학생등 각계에서 보내온 기념품과 꽃다발이 한아름 안겨졌다.

全榮華교수個人展

非具象작품선보여

東洋화가 海丁 全榮華(美術科)교수의 작품전이 8월22~31일까지 新世界미술관에서 열렸다.

60년 한국전통회화의 현대적 방법을 추구하는 墨林會가 결성되면서부터 핵심멤버로 활동해온 全교수는 꾸준히 非具象의 길을 걸어왔다.

고마자와大와 1勝1敗기록

모교野球部 日本원정경기마쳐

모교 野球部가자매교인 日本「고마자와」大學 초청으로渡日、친선경기에서 2戰1勝1敗 무승부를 기록하고 8월31일 귀국했다.

李昌億前체육부장 李載炯前체육주임 裵星瑞감독과 코치·선수등 26명이 참가한 日本원정야구팀은 지난28일 全日本大學 작년도우승팀이며 금년시즌준우승팀인「고마자와」대학과의 1차전에서 5회張浩淵의 선제홈런등 11개안타를 퍼부으며 2대1대로승리했다.

알림

평소 東國을 아껴 주시는 同門 여러분의 배려에 힘입어 本會가 나날이 發展하고 있읍니다.

本會가 지난 76年에 發刊한「東國人名錄」은 그동안 會員의 住所및 職場에 많은 變動이 있어 年內에 새로운會員名簿를 發刊코저 하오니 左記양식에 외거 빠짐없이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東國大學校 同窓會 會員카드

姓 名	한글	한문	
出身學科	大學(院)	科(전공)	
入學年度		卒業修了年度	
勤務處		職位	
勤務處住所		Tel	
自宅住所		Tel	
其 他			

<上記카드를 오려서 우편엽서뒷면에 부착하여 보내셔도 됩니다。>

"永久不變 同窓會, 萬古成長 東國人!.

(※現住所·勤務處등 變動時는 즉시 연락바람)

▲보낼곳=서울중구 필동3가26 동국대학교동창회

電話 267-8568(直通)
267-8131~9(交)465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 崔 載 九